

김지하 시인 '2008 목포 전국우수마당극제전' 초청 특강

“문화운동으로 영·호남 갈등 풀자”

“전라도와 경상도를 대표하는 못난이들이 하동 장터에서 만나 결판지게 못한 것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민주화 운동과 생명운동의 상징적 존재이자 민족문화운동의 선구자로 꼽히는 김지하(67·원광대 원불교학과 석좌교수) 시인이 지난 26일 목포 유달산 모심문화예술센터에서 열린 2008 목포 전국우수마당극제전 초청 특강에서 영·호남 갈등을 문화운동으로 풀어보자는 제언했다.

“하동장터서 못난이 대회”

김 시인은 ‘운하에서 바다로, 햇불에서 촛불로,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관소리가 울려퍼지는 호남은 탈춤으로, 탈춤이 유명한 영남은 관소리로 영·호남못난이 대회를 치르고 이들 중에서 가장 못한 예술가들을 뽑아 상을 주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난 같습니까? 장난부터가 바로 시작입니다. 영·호남이 손잡고 웃으면서 상처치료를 하고 화해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남쪽에서 새로 시작한 문화운동이 문화상품의 주역이 돼 서울로 올라가고 바다를 건너가 해양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풍자와 해학 등 탈춤의 전통미학이 현대적으로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촛불연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물대포에는 운수와 비누를 요구하고, 경찰이 마이크를 잡고 해산을 명령할 때는 ‘노래해, 촛취발’로 응했으며, ‘뺨이죽이지’ 같은 강렬한 구호에 ‘종이나 찢어죽이지’라는 추임새로 한바탕 웃음이 쏟아졌던 촛불 시위의 현상이야말로 참신한 풍자와 해학이 넘쳐나는 것이다.

“촛불의 주체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보호대상이면서도 소외됐던 이른바 ‘못난이’들이었죠. 이들이 먹을거리, 물, 교육, 환경 등 생활가치를 들고 직접 민주주의의 전선에 나섰고 그 형식은 비폭력, 무저항, 유머와 여유, 춤과 노래 등의 평화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촛불에는 할머니가 손자의 간장을 위해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과 같은 간절함이 담겨있었고 이 간절함이 집단 지성으로 표현된 것”이라며 “과피를 상징하는 햇불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촛불은 싸움이나 투쟁으로 맞서지 않고 화나도 참는 ‘참선’을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로 던졌다”며 “참선은 갈등의 고리를 끊고 넘어서는 새 차원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수련과정”이라고 역설했다.

“촛불 시위 풍자·해학 넘쳐”

그는 새로운 문화상품만을 찾는 게 아니라 문화를 해석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마당극도 말뚝이와 양반의 계급갈등을 해결 구도 형식이란 것만 그릴 게 아니라 인물 내면의 갈등과 슬픔에 주목해 행복과 불행 이야기를 ‘마당굿’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김 시인에 따르면 서로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있으며 이들의 양면이 들어다 본 뒤 새롭게 해석한다면 전통문화도

▶ 김지하 시인 약력=1941년 목포 출생, 서울대 미학과 졸업, 1969년 ‘시인’지에 ‘황룻길’ 등을 발표하며 등단, 1970년 ‘사상계’에 ‘오적(五賊)’을 발표한 후 투옥,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의 ‘로터스(LOTUS)상’(1975년)과 국제시인회의의 ‘위대한 시인상’(1981년)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황토’ ‘타는 목마름으로’ ‘화개’ 등이 있다. 현재 동국대·원광대·명지대 석좌교수.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시인은 “훌륭한 예술가는 민중을 피동상태에서 끌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의 상태에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며 “요즘엔 잘난 시인들이 잘나고 어려운 시들만 쓰는 것 같아 나는 조금 부족하면서 모자란 시를 써도 될 것 같아 ‘못난이’를 집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전남영상위, 여수서 ‘화려한 휴가’ 상영

(사)전남영상위원회는 여수시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무료영화관’ 행사를 진행한다.

‘여수시 찾아가는 무료 영화관’은 영화관이 없는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 직접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로 지난 25일 불산읍 읍내리를 시작으로 남면 우학리, 화정면 사도, 삼산면 거문포 등에서 오는 8월 29일까지 계속된다.

상영 영화는 광주 5·18 항쟁을 다룬 지난해 화제

작 ‘화려한 휴가’며 전남영상위가 선정한 작품도 상영할 계획이다. 무료 영화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소리 공연, 의료 서비스,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영화관’은 여수·순천·광양 등에서 지금까지 모두 56회 진행됐다. 문의 061-744-2273.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박물관 ‘천연염색 페스티벌’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8월4일~9일까지 2008년 박물관대학 프로그램인 ‘천연염색 페스티벌-아름다운 우리 색’을 개설한다.

김왕식(광주·전남천연염색협회), 정종미(경희대학교 교수)씨 등이 강사로 나와 ‘전통 복식과 우리의 색’, ‘천연염색 바로 알기’, ‘우리나라 식물의 색’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광주·전남지역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1일까지 30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 문의 062-570-7053. /오광기자 kroh@

어머니·大地 ... ‘영원의 세계로 회귀’

진경우 개인전,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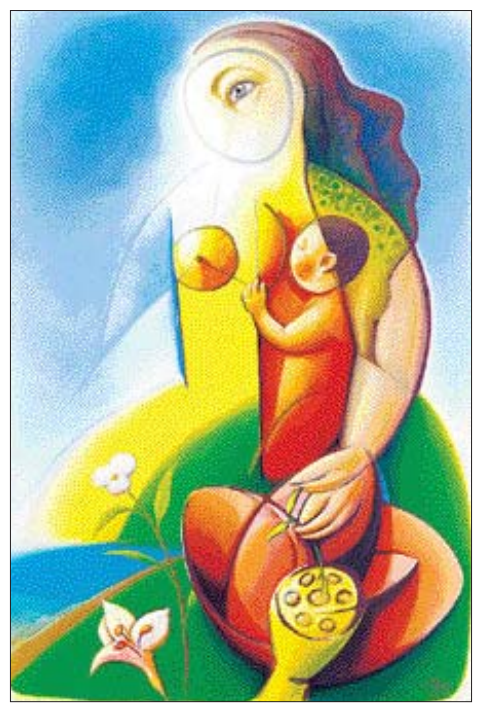
중견 서양화가 진경우씨가 오는 8월2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노인, 아낙네들을 주로 그렸던 진씨는 이번 전시에서 ‘영원의 세계로 회귀’를 주제로 어머니와 대지를 표현한 50여 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노란색과 초록색을 잔뜩 풀어 대지를 그린 뒤 그 위에 어머니와 아이들을 등장시켜 자연과 생명력을 표현했다. 안식처인 어머니를 통해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퇴색되고 있는 고향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작품들이다. ‘낙원에서’는 대지 위에서 춤을 추는 인물들의 환희를 형상화했고 ‘생명-혼’은 대지와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병치시켜 무한한 생명을 노래했다.

조선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진씨는 새구상화가 11인조대전, 민중미술 15년전, 광주미술현장전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이 중견작가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년에는 지난 3월 타계한 이강하씨와 설치작가 손봉채씨의 개인전도 내년엔 열 예정이다. 문의 062-222-3574.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생명-혼’



26일 2008 동아시아국제어린이공연예술제 폐막공연이 끝난후 참가자들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개국 250명 민속음악·무용 ‘갈채’

동아시아 공연예술제 성료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어린이들의 큰잔치인 2008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제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막을 내렸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광주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중국, 몽골, 한국, 일본 등 6개국 250여명의 공연단이 참여, 각국의 민속 음악과 무용 등을 선보이며 많은 갈채를 받았다.

지난 24일 광주문화회관에서 열린 개막공연으로 문을 연 이번 예술제는 앞으로 세계 문화계를 이끌어갈 예술 꿈나무들의 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 지역 어린이 등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세계 각국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26일의 폐막 공연에는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특히 몽골 팀의 ‘이구아나춤’과 중국의 7~9세 어린이들로 구성된 무용팀의 ‘동북소녀의 춤’은 관객들로부터 탄성과 함께 큰 박수를 받았다. 국내외 공연단들은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축제의 밤’

행사에 참여, 추억의 시간을 갖기도 했으며 27일에는 몽골 공연단 등 해외 팀들이 광주 운암초등학교 등 자매결연 학교를 방문, 한국 전통문화 등을 체험하기도 했다.

광주시가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세계 문화 기구와 함께 행사를 진행한 것도 큰 자산으로 남았다. 특히 오는 201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여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쓰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직접 유네스코 세계 문화포럼 개최를 제안한 것은 광주시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운영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으나 공연장을 찾은 일부 학생들의 경우 공연 관람보다는 자원봉사 점수를 받는 데 집중,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6일 초등학교 2학년 딸과 폐막공연을 관람한 김경아(39·광주시 서구 영주동)씨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속 공연을 볼 수 있어 아이가 무척 즐거워했다”며 “행사 타이틀이 어린이 예술제인데 몇몇 작품의 경우 출연진들의 연령대가 높아 조금 아쉬웠다”고 말했다.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영화안내' (Happy Time Movie Guide)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such as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시네마, 씨너스전대, 하미시네마, and 제일시네마. Each listing includes movie title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